

“여러 군상 그리는 뻔하지 않은 범죄극”

“하나의 돈 가방을 각기 다양한 사연과 욕망으로 쫓는 여러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연·정우성·윤여정·배성우 등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대해 출연 배우들은 이같이 설명했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평범한 인간들이 돈 가방 앞에서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다.

13일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전도연은 “뻔한 범죄극이 아닌, 극적인 구성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신선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함께 호흡을 맞춘 정우성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온다”며 “배우들이 영화를 해석하는 방식도 각기 달랐다”고 말했다.

전도연은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연희를 연기했다. 연희는 돈 가방을 차지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린다. 정우성이 맡은 태영은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애인 때문에 마지막 한방을 계획하는 환한 공무원이다. 두 사람은 이번 영화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췄다.

“센 캐릭터라 힘 빼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려고 했어요. 태영이 아는 연희와 모르는 연희가 서로 다른데, 태영이 아는 연희는 사랑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창피했어요. (웃음) 우성 씨와 이전에 함께 연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았어요. 적응하자마자 같이 났는데 더 오래 연기하고 싶은 생각이예요.”(전도연)
“그동안 전도연씨와 함께 작품 했을 법



전도연(왼·정우성이 첫 호흡을 맞춘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내달 12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전도연·정우성 영화 ‘지푸라기...’서 첫 호흡 돈 가방 쫓는 여러 인물들의 사연 담아낸 작품

했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이 들었죠. 쫓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태영은 때론 강아지이지만 자신이 마치 밀림의 사자인 양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인물이에요.” (정우성)
배성우는 사일 실패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만을, 윤여정은 중만의 어머니인 순자를 연기했다.

윤여정은 “전도연의 제안으로 영화에 합류했다”고 강조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피 나오는 영화를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좀 달랐어요. 전도연이 전화 걸어서 제가 해야 한다고 해서 중요하고 큰 역할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오요. (웃음)”
이밖에도 정만식과 진경과 신인배우인

신현빈, 정가람 등이 출연한다.
불법체류자인 진태를 연기한 정가람은 선배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소감을 “(선배들이) ‘땡땡’ 하시니까 품에서 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표현했다.
일본 작가 소네 케이스케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연출을 맡은 김용훈 감독은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다.
김 감독은 “원작이 소설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영화적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캐릭터들도 더 평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2일 개봉. /연합뉴스

엑소 첸 “축복 찾아왔다” 결혼 발표

결혼식 및 관련 사항 비공개 진행

보이그룹 엑소 메인보컬 첸(본명 김중대·28)이 결혼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첸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며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만 참석해 경건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들 의사에 따라 결혼식 및 결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SM은 “앞으로도 첸은 아티스트로서 변함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할 것”이라며 “첸에게 많은 축복과 축하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첸도 공식 팬클럽 커뮤니티 ‘리슨’에 게재한 자필 편지에서 “저에게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함께 해온 멤버들과 회사, 특히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놀라시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일찍 소식을 전하고 싶어, 회사와도 소통하고 멤버들과도 상의를 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저에게 축복이 찾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멤버들과 상의해 계획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저도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축복에 더욱 힘을 내게 됐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조심스레 용기를 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준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변함없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음원 강자 청하-폴킴 듀엣곡 ‘리브십’

지나쳐버린 설렘 담은 곡...21일 공개

국내 대표 ‘음원 강자’ 솔로 가수 청하(본명 김정하·24)와 폴킴(김태형·32)이 만나 함께 부른 곡을 내놓는다.

음원 유통사 카카오펜트 두 사람 듀엣곡 ‘리브십’(Loveship)이 오는 21일 오후 6시에 발매된다고 13일 밝혔다.

리듬앤블루스(R&B) 장르인 이 곡은 싱어송라이터인 폴킴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은 뒤 완성됐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 피어난 설렘을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온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청하와 폴킴은 발표하는 곡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음원

강자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로 결성된 걸그룹 아이오아이(I.O.I)로 활동한 청하는 2017년 솔로로 변신했다.

‘와이 돈 유 노’(Why Don’t You Know), ‘롤러 코스터’, ‘벌써 12시’, ‘스내핑’(Snapping) 등 다수 노래를 히트 시켜 손꼽히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폴킴 역시 ‘너를 만나’, ‘모든 날, 모든 순간’, ‘안녕’ 등에서 특유의 음색을 뽐내 높은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JTBC 음악 예능프로그램 ‘비긴어게인 3’에 출연해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윤시윤 “두 가지 악기 다루는 기분”

종영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서 어설픈 살인마 연기

“쉽지 않아요, 역할 1개도 제대로 못 하는데 2개를 한다는 게. 하지만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즐거워요. 2가지 악기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최근 종영한 tvN 수목극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는 여러모로 독특한 작품이었다. 서스펜스와 코믹, 이질적인 두 장르를 섞은 점이 그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호구’ 주인공이 자신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 연쇄살인마라고 착각하는 설정 또한 그랬다.

배우 윤시윤(34)은 이 드라마에서 증권사 직원 육동식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사이코패스 같지만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중적인 역할이었다. 시청률은 내내 1~2%대를 맴돌아 잘 나왔다고 할 순 없지만 윤시윤 연기는 호평을 받았다.

윤시윤은 13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라운드인터뷰에서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장르극이면서 코믹극이라 쉬운 장면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

들의 ‘로망’인 사이코패스 연기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이코패스 연기는 독이 든 배일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거쳐간 선배들 연기가 기라성 같잖아요. 전 ‘작각’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있어서 제가 사이코패스다운 행동을 할수록 사람들은 웃게 돼요. 그게 매력적이고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사이코패스 특징에 대해 ‘어설피름’이라고 요약했다.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극중 동식이는 ‘사이코패스라면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연기해요. 최대한 뻔하고 어설피름수록 동식의 연기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어설피름과 허접스러운 사이코패스였죠.”

그는 저조했던 시청률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다음 드라마에선 채널을 돌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을 갖는 배우가 돼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힘은 배우로서의 인기가 아니라 결국엔 연기적 신뢰에 달려 있고요.” /연합뉴스



지난해가 데뷔 10년 차였다는 그는 지난 10년을 “검증받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했다.
“돌이켜보니 데뷔 초 혜성처럼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더라고요. ‘지붕뚫고 하이킥’과 ‘제빵왕 김탁구’ 후 10년은 받은 복에 대해 검증받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검증이 끝날 텐데, ‘더 이상 이 배우는 못 쓰겠다’ 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작품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연합뉴스

지코 신곡 ‘아무노래’ 발매

편안히 대화하는 듯한 노래

가수 겸 프로듀서 지코(본명 우지호·28)가 신곡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지코가 13일 오후 6시 신곡 ‘아무노래’를 발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곡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라는 노랫말에서 엿보듯 편안히 대화하는 듯한 노래다. 통통 튀는 사운드와 랩과 보컬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지코의 장기가 어우러졌다.

지코는 오는 2월 22~23일 송파구 을림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여는 단독 콘서트에서 ‘아무노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4일 (음력 12월 20일)



48년생 모르는 것이 약이 된다. 60년생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 72년생 동료의 협력을 받아서 승승장구 한다. 84년생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부른다.



49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61년생 아는 것이 힘이다. 73년생 상급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 85년생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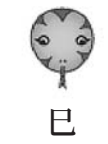
50년생 죽어 석 잔 술이 살아 한 잔 술만 못하다. 62년생 경사가 겹치는 날이다. 74년생 육식을 줄이면 후회할 일이 없다. 86년생 오해받을 행동은 삼가라.



51년생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63년생 이미 정해진 일에 미련을 두지 말라. 75년생 지나친 독성은 자신마저 망친다. 87년생 앞만 보고 전진하라.



52년생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르다. 64년생 진정 좋은 인연이라면 놓치지 말라. 76년생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88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41년생 세월 앞에 장사 없다. 53년생 다소 흥한 일진이니 외출을 삼가라. 65년생 간절한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77년생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42년생 원한 살 말과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54년생 행운이 찾아온다. 66년생 사소한 실수가 침소봉대된다. 78년생 마음을 굳게 먹으면 복을 받는다.



43년생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55년생 의리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67년생 기대보다 결과가 훨씬 좋겠다. 79년생 순리를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다.



44년생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56년생 노력과 열정으로 꿈을 이룬다. 68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80년생 기쁜 소식이 있겠다.



4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57년생 진실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69년생 직장인이려면 구슬수를 조심하라. 81년생 신세 한탄은 이제 그만, 새 출발하라.



46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58년생 물지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70년생 때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더 어렵다. 82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47년생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59년생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순 없다. 71년생 애꿎은 나이를 탓하지 말라. 83년생 이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